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1.(수) 8:00
(지면) 2026. 4. 1.(수) 석간

정책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민간이 돕는다 행안부, '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' 출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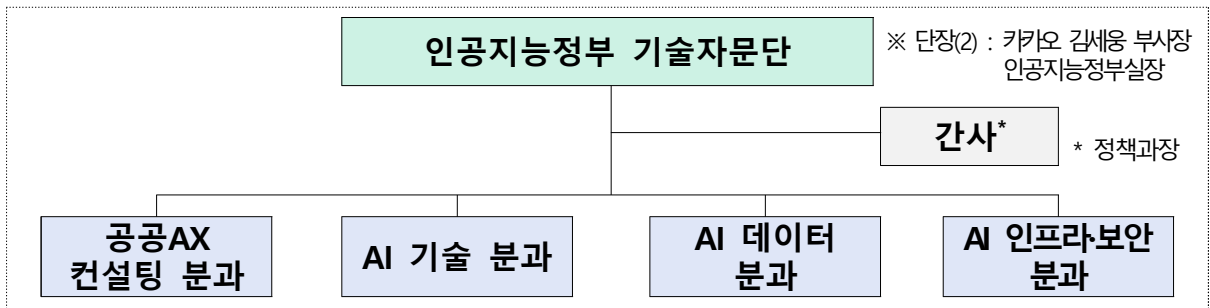
- 산·학·연 전문가 101인 참여,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·관 협력 본격화
- (주)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단장 위촉, 4개 분과별 상시 자문 체계 가동

【관련 국정과제】 24.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(AI)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(화), 광화문 KT빌딩에서 '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' 발대식을 열고,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
- 최근 제미니(Gemini), 챗지피티(ChatGPT)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 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.
-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-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.
-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·대학·연구소(이하 산·학·연)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, 공공 인공지능 전환(AX) 컨설팅, 인공지능(AI) 기술, 인공지능(AI) 데이터, 인공지능(AI) 인프라·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.

- 각 분과는 분과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, 행정안전부 내부의 자문 수요가 있는 과제 등에 대해 맞춤형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.
- 아울러, 분과별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세미나도 수시로 열 계획이다.
- 또한, 연말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‘국가 AI 행정 혁신 산·학·연 통합 포럼(가칭)’을 열어 공공부문 인공지능(AI) 전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,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.

< 기술자문단 구성 >



- 기술자문단의 민간 대표 단장은 (주)카카오 김세웅 부사장이 맡아 산업계의 현장감 있는 시각과 전문성을 자문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
- 김세웅 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“기술과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민간의 전문성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겠다”라고 말했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인공지능정부는 행정에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,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과 정부 운영 전반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국가적 과제”라며,
- “이번 기술자문단이 인공지능 민주정부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원갑 (044-205-2702)
		담당자	사무관	국정완 (044-205-2717)



[인사말]
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'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'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[단체 기념촬영]
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'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'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